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서시범대학	기숙사비	2500/한 학기
파견지역	광서 계림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d) 분할납부(※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5. 3 ~ 2016. 1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5. 1. 23 .

파견자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수업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각 반마다 중국어중합, 쓰기, 듣기, 말하기 등으로 수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본인이 각 부분별로 원하는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 오후 한 과목씩 있으며 아침에는 09시 30분부터 12시,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과목마다 중문과 학점(혹은 일반 학점)으로는 3학점씩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파견학생들은 총 6개의 수업을 선택 해 들으면 됩니다. 대개 어느 반이나 중국어 중합 수업 같은 경우는 주에 2번씩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타임마다 3학점씩으로 인정되어 한 수업에 6학점이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총 5개의 수업을 수강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수업도 주에 2번을 한다면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처음 개강을 하면 2주정도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신청을 하는 기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수업을 고르면 됩니다.

사실 초 중 고급반에 있는 학생들은 4년동안 함께 꼭 이곳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초반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수업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없고 교재정보도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나 반장(각 반마다 있습니다.)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모든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다 다르고 학기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딱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 과제는 그냥 수업 내용에 따라 적절히 나옵니다. 부담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3월 9월 어느 학기에 가든 처음에는 날씨가 매우 습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 다른 학생들 모두 금방 적응해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계림은 비가 자주 내립니다. 특히 3월 학기에 오게 된다면 4월까지의 매일 비가 올 정도로 많이 내리는 날 도 있습니다. 때문에 3월 학기에 온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옷만 챙기기 보다는 적당한 외투와 긴 옷들도 한 두벌 씩은 챙겨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내까지는 버스를 타면 20분도 안되어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는 있을건 다 있습니다.

학교에는 남문과 서문(정문), 북문이 있습니다.

남문과 서문은 24시간 개방하고 북문은 저녁 10시~11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보통 남문으로 나가면 식당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은 남문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학교 남문이나 기숙사 근처 가게들에서 생필품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처음 올 때 짐을 무겁게 하고 오기보다는 현지에 와서 사는게 나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북문이나 서문쪽으로 가면(근접해있습니다) 고치를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문을 엽니다.

학교 근처에도 쉽게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학생증을 발급 받은 후에 지참해서 가면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서사범대는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위차이育才, 왕성王城, 연산雁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위차이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2500/ 학기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딱히 없음. 매우 자유 분방함. 학기 중반마다 12시 통금이 생김.		
주인사항	밤에 시끄러울 수 있음. 외국인 친구들이 매우 쾌활함.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는 가격 값 하는 것 같습니다.
 2500원이면 50만원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싸지만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순천향대 기숙사보다는 넓고 좋습니다.
 침대가 좀 딱딱한데 타오바오 등으로 매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티비, 정수기 옷장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냉장고는 없습니다.
 조리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인덕션이나 냄비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요리를 해 먹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방바닥이 차갑습니다.
 방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1층에 가서 보고하면
 바로 해결해줍니다.
 기숙사 자체 와이파이기가 있지만 매우 느리고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에
 모뎀과 공유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잘 안 나와서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정말 필요하다.(학교남문에서 판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전기와 물은 카드를 발급한 후에
충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온수카드와 전기카드가 있고
냉수비는 학기가 끝날 쯤에 직접 받으러 옵니다.
전기는 50원을 내면 100도를 충전해주는데
에어컨, 히터를 쓰지 않는다면 100도로
한 달반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년 1월 기준으로 학교 내에 헬스장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있고
학생들은 보통 대운동장에서 달리거나 걷습니다.
보통 발래는 각자 문 앞에 걸어놓습니다.



뜨거운 물은 보통 오전7시부터 오전7시사이
오후2시부터오후5시 사이에는 미지근한
물만 나온다. 뜨거운 물의 경우 카드를
시설이 조금 낙후되었으나 물은 깨끗하게 잘
나오는 편이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학생식당은 기숙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증을 제시하면 식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밥과 반찬종류를 골라서 살 수
있고 밥은 양에 따라 0.2원~1원
반찬은 1원~3원 정도에 담을 수 있습니다.
2층에도 식당이 있으며 2층은 카드 없이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두나 제과류, 국수 전병 등
여러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세탁실은 기숙사 4층 9층에 있으며
한 번에 3원, 4원씩입니다.
건조기는 10분당 1원이고
기숙사 1층 카운터에서 동전을 바꿔줍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동전을 안 바꿔줄 때도
있기 때문에 동전을 미리 바꿔두거나
기숙사 앞 가게에서 바꿔야합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매우 크다.
원래 출입할 때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카드가 없어서 학생증을 경비아저씨한테
보여주고 들어가서 자습을 하였다.
자습실은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으며
도서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고
밤10시까지 연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 계림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은

1. 계림은 표준어보다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역인지 그리고 쓴다면 정도가 심한 지역인가 ?
2. 정보가 많이 없는데 완전 시골인가?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올지 모르나 혹시 저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적습니다.

첫 번째로 사투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는 거의 들을 일이 없고 밖으로 나가도 가끔씩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쓰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들 보통화를 사용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림만의 사투리도 있는데 중국은 어딜 가나 사투리가 조금씩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발음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림은 중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작은 도시가 맞습니다.

그 흔한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 하나 없고 지하철도 없고 시내에 높은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을 사려고해도 중국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이니스프리 라던가 유니클로 하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지하철 없이 버스만 타고 다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만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있을 것도 다 있고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작은 만큼 물가도 싸고 한국인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았구요.

저는 계림의 자연경관, 풍경이 좋았습니다. 산이 많고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타고 15분정도 나가면 한국식물점이 있어 한국이 그리울 때는 그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계림으로 교환학생을 온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계림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좋았습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많이 보고 놀고.

중국어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3월 처음에 왔을 때 보단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취향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림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도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교류처에서 맺어준 학교이니만큼 다른 도시들에 있는 학교들도 광서사범대만큼 좋은 학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 중에는 서안밖에 가보진 못했지만 서안도 매력적인 도시였고 학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들기로는 기타 각지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모두 만족하며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건 교환학생을 가는 것 자체고 가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좋고 나쁠 수는 있으나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수기를 보는 학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한 학기가 끝날 때가 되면 문득 “벌써 갈 때가 됐네,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환학생 한 학기는 정말 금방 갑니다.

다른 이런저런 조건은 다 부질없습니다. 적응할 사람은 어딜 가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교환학생가서 못버티고 도망가거나 징징댄 사람도 못봤습니다.

다들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런 한 학기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